

한국에서의 재물관 논쟁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승욱(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논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에서 최근에 있었던 재물관 논쟁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그 논쟁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보다 균형 잡힌 성경적 재물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김동호(2001, 2005, 2009)의 견해를 중심으로 청부론을, 김영봉(2003)의 견해를 중심으로 청빈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이상원(2004)의 비판을 중심으로 재물관 논쟁을 평가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 기독교계의 재물관 논쟁이 문화관 및 세계관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하지 않았으며, 거시경제적 고려가 부족해 저축을 통한 자본의 형성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문화명령을 고려할 때 문화 활동, 경제성장 및 인간의 성취욕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청빈론은 절제를 넘어 금욕주의적인 견해라고 판단된다. 김동호(2001)의 청부론의 경우, 청부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지만, 이 점을 제외하고는 돈에 대한 관점, 소비와 저축에 대한 인식 등은 김동호의 견해가 보다 성경적으로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판단된다.

주제어: 청부론, 청빈론, 재물관, 저축관, 기독교 문화관

2009년 11월 13일 접수; 12월 10일 수정; 12월 12일 게재확정.

* 이 논문은 2009년 6월 15-16일에 경주힐튼호텔에서 “The Foundations of Christians Higher Education and Christian Scholarship (기독교대학교육 및 기독교학문의 토대)”라는 주제로 열린 제4회 국제기독교대학교육학술대회의 발표논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이 논문의 유익한 토론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를 드린다.

- I. 서론
- II. 한국 기독교계에서의 재물관 논쟁
- III. 재물관 논쟁의 고려 사항
- IV. 결론

I. 서론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재물관 논쟁이 일어났다. 김동호(2001: 72)는 한국사회가 지나치게 부자를 정죄하고 청빈을 찬양한다고 지적하며, 청빈론을 비판하기 위한 『깨끗한 부자』를 발표했다. 사실 한국 사회에는 불교나 유교 등 전통 종교의 영향으로 부(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예를 들면 깨달음으로 열반에 들어가려는 불교는 생산 활동 등 살생의 우려가 있는 육체적인 일은 금기시하고 노동을 비하하여 승려의 종교적인 수행을 공양하는 저급한 영역으로 인식하면서, 무소유와 절제를 미덕으로 여겼다. 현실 도피적이 아닌 유교에서도 노동에 종사하는 소인(小人)은 다스리는 군자에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했으며, 다스리는 일이 육체적인 일보다 더 가치 있다는 이원론적 인식을 가졌으며, 청빈을 높이 평가했다(김승욱·유해신, 2002: 20-22).¹⁾ 이와 같이 한국의 전통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유교와 불교는 오늘날까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서 기독교 내에도 청빈사상이 확산되었다.

그런데 김동호(2001: 6)는 『깨끗한 부자』의 서문에서 “돈이 무조건 복인 줄 알고 기독교 신앙까지 기복적으로 변질시켜가며 시는 것도 문제지만 돈을 무조건 죄악시하여 천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하면서, “청빈

2) 물론 군자나 선비가 단순한 여가만 즐기는 소비계층이 아니라 통치하는 일 즉 정신노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淸貧)이 ...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과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 청부(淸富)”라고 주장하였다. 김동호(2001: 73)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은 누구나 궁극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청부(淸富)를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으로 주시는 부'라고 정의했다.

이에 김영봉(2003)은 “그리스도인, 부자로 살아도 되는가?”라는 부제를 단 『비늘귀를 통과한 부자』를 발표하여 청부론을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김영봉(2003: 18)은 김동호(2001)의 견해를 '청부론'이라고 규정하면서, 청부론의 가장 큰 문제점을 재물을 누리려 한다고 인식하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크리스천은 마음껏 누리라고 선택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롭게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따라서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재물을 가능한 다 나누어주고 자발적으로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국기독교윤리학회와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가 공동으로 2004년에 “경제 문제와 기독교윤리: 기독교인으로서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학회를 개최하여 어느 견해가 더 성경적으로 적절한 재물관인지 논의를 하였다. 그 후 김동호는 『행복한 부자를 위한 5가지 원칙(2005)』, 『미션 임파서블(2009)』 등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옹호했다. 이렇게 김동호(2001)와 김영봉(2001)의 저서에서 촉발된 논쟁은 한국 기독교계에서 청부론-청빈론 논쟁으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물관 논쟁은 주로 목회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경제학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시경제학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었다. 즉 미시적인 관점에서 재물이 각 개인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만 주로 논의 되었을 뿐, 개인적으로 저축을 통하여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 거시경제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전체 경제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저축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자본의 의미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고 돈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계에서 논의된 재물관은 균형 잡힌

재물관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재물관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청빈론과 청부론을 둘 다 부정하는 양비론에 빠짐으로써 논의의 초점을 잃은 경우가 많았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한국에서의 재물관 논쟁에서 논의되지 못했던 부분을 채우려는 것이다. 양쪽이 다 틀렸다고 하는 양비론을 넘어서 어느 견해가 더 적절한 견해인지 밝히고,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기독교적 문화관과 성장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및 거시경제적 관점에 대한 고려를 함께 하면서 보다 적절한 기독교적 재물관이 무엇인지를 밝히려고 한다.

II. 한국 기독교계에서의 재물관 논쟁

신학자와 경제 및 경영학자들 사이의 학제간 연구를 지향하는 시각에서의 기독교 재물관에 대한 논의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추구하는 ‘통합연구학회’에서 1991년에 발표된 것이 최초였다. 그 학회의 결과로 『통합연구』 통권 제11권(1991)에서 특집으로 ‘가난과 부요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6편의 논문이 실렸는데, 이 중에 재물관과 관련이 있는 논문은 이견창(1991), 이상규(1991), 전광식(1991)의 세 편이다.

이견창(1991)은 “가난과 그리스도인의 경제 원리에 관한 소고”에서 가난과 부요에 대한 성서적 개념을 정리한 후에 과연 풍요와 부요를 추구하면서도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질문에 대해 이견창(1991: 97)은 부의 양면성을 언급하면서, 재물에 대해 자유로워져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도록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규(1991)도 “성경에 나타난 부요의 양면성”에서 부의 양면성과 이상성을 설명하고, 부에 대해서 교회사적으로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가를 소개

한 후에 부의 청지기적 소명을 설명함으로 끝을 맺고 있다.

전광식(1991)은 “기난과 부요의 저편 - 아굴의 기도와 성경적 소유원리”에서 ‘아굴의 기도(잠언 30장)’를 통해서 성경적 소유원리를 유추하였다. 여기서 전광식(1991: 198-99)은 아굴의 기도는 변영의 신학도 아니고 궁핍의 신학도 아닌, 양자의 중용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필요한 양식’이 주는 영적 삶의 안정성을 아굴이 바라고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내적인 인간의 의식, 곧 신앙의식이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한국 기독교계에서 재물관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대부분 논란을 면하기 위해 극단적인 주장을 피하고, 영적인 경건과 돌봄을 강조하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성경적 재물관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일어나지 않았다.¹⁾ 그리고 최근에 크리스천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쓰인 기독교 신앙과 경제문제를 통합해서 고찰하는 시도로 저술된 서적들은 대개 재물이나 돈에 대한 철학적 관점 보다는 경제학과 신앙 전반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황의서, 2003; 이운재, 2004; 양창삼, 2007; 김병연조성봉, 2008; 이재율, 2009).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동호(2001)가 청빈사상을 비판하면서 청부론을 주장하였고, 그러자 김영봉(2003)이 청부론을 비판하면서 청부론-청빈론 논쟁이 시작되었다. 이 장에서는 먼저 김동호의 견해(2001, 2005, 2009)와 김영봉의 견해(2003)를 중심으로 청부론과 청빈론의 주장을 정리하고 이 논쟁의 전개과정과 한계를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부론과 청빈론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유사한 점도 많다. 하나님은 재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라는 사실,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 재물의 위험성, 베품과 나눔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등은 청부론자나 청빈론자나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단

1) 이후 『통합연구』 통권 29권 (1996)에서 “성경적 원리와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이 발표되었으나 재물관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지 돈이 문제인가 인간의 탐욕이 문제인가,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어느 정도 누리려도 좋은가, 저축을 해도 좋은가, 성경적 경제체제는 어떠한 것인가 등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공통점은 생략하고,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1. 김동호의 청부론

다양한 형태의 청부론이 있지만, 이 절에서 김동호의 견해를 중심으로 청부론을 살펴보는 이유는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견해를 고려하면 상황하게 되어 논지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먼저 김동호의 견해를 통해서 청부론의 핵심을 살펴보고 이와 비슷한 견해를 가진 저술들을 소개한다.

먼저 김동호(2001: 14)는 자신의 재물관이 균형 잡힌 시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한쪽의 극단에 재물을 터부시하고 청빈을 강조하는 '유교적인 재물관'이 있고 다른 한쪽의 극단에는 재물을 축복으로 여기는 '기복적인 재물관'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독교적 재물관은 이 둘과 다른데, 기독교의 재물관이 기복적 재물관과 다르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유교적인 재물관과도 다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면서, 기독교적 재물관은 청빈을 강조하는 유교적 재물관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돈에 대한 관점

그 후 2005년에 발표한 『행복한 부자를 위한 5가지 원칙』에서는 기독교의 건강치 못한 두 극단으로 '기복주의'와 '영지주의'를 언급하면서 기독교적 청빈론을 영지주의라고 규정했다. 기복주의는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것이고, 영지주의는 "예수를 잘 믿으면 결국 부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김동호, 2005: 121, 166). 물질을 악하

게 보는 영지주의자들은 돈을 악한 영적 세력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갖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서 김동호(2005)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청빈론자들이 돈을 악한 세력으로 간주하는 것은 영지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김동호는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며,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지, 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돈의 중립성을 강조한다.

또한 김동호(2001: 21)는 청부론이 기복사상과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돈을 '복'이 아니며 '은사'라고 주장한다. '복'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인 반면에 특정한 '은사'는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그런데 믿음이 진실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돈을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돈은 복보다는 은사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또한 은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더욱 늘어나고,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특징이 있는데, 돈도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기 때문에 돈은 은사와 더 유사하다고 주장한다.²⁾

소비관과 부자관

대부분의 청부론자들이 그렇듯이 김동호도 돈의 위험성에 대해 경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동호(2001: 58)는 에리히 프롬(Fromm, 1976)의 『소유냐 삶이냐(To Have or to Be)?』를 인용하여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소유가치를 높이는데 있지 않고 존재가치를 높이는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한 부함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 있다고 주장을 한다. 그리고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잠

2) 돈을 복이 아니라 은사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 이상원(2004, 63)은 "성경은 돈이나 물질을 은사라고 부른 예가 없다."고 강력하게 반박을 한다. 반면에 조성표(2008: 89)는 동감을 표시하였다.

16: 8)"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이러한 김동호(2001: 34, 43)의 주장은 청빈론과 다른 것이 없다.

그러나 김동호의 견해가 청빈론과 크게 다른 점은 크리스천도 부자로 살 아도 된다는 소비관이다. 가난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부유하게 살 것인가는 결국은 어느 수준의 소비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살 것인가의 문제이다. 김동호(2001: 62)는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 가운데 도 얼마든지 존재형의 인간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동호(2001: 68)는 아브라함, 욥, 다윗, 아리마대 요셉 등은 모두 다 의로운 부자들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과 부함의 의미를 단순히 가난함과 부함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에리히 프롬이 말한 소유형의 인간과 존재형의 인간에서 찾는 것이 더 옳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가난해야 하고 그 래야 거룩하다는 생각은 전혀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다(김동호, 2001: 46)"라고 하면서 "기독교에서는 청부(淸富)를 더 숭고하고 가치 있는 삶으 로 받아들인다(김동호, 2005: 55)"고 주장하였다.³⁾

김동호(2001: 121)는 돈의 몫을 하나님의 몫, 다른 사람의 몫, 그리고 자 신의 몫으로 구분하였다. 하나님의 몫은 십일조를 말하고 다른 사람의 몫 에는 구제와 세금이 포함된다. 이렇게 구분한 다음 "온전한 십일조 생활을 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2의 십일조를 드 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회년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유산 안 남기기 운 동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물질적인 안정과 부함에 대해 자유를 누려도 좋 다"고 주장했다(김동호, 2001: 87).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최

3) 여기에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도 부유하게 살 수 도 있다 고 주장한다.

4) 여기에서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최소 기준은 십일조이고 어려운 이웃을 위 한 하나님의 최소 기준은 3년에 한 번씩 가난한 이웃을 위해 드리는 십일 조, 즉 삼십분의 일로써 이를 제2의 십일조라고 했다(김동호, 2001: 78). 그리고 구약의 회년의 법은 현대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 로 그 정신을 살리자면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이 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대(maximum)가 아니고 '최소(minimum)로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세금도 역시 이웃을 위한 몫으로 간주하는데,⁵⁾ 김동호(2005: 147)는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율은 결코 만만치 않은 세율이라며 십일조와 구제헌금을 다 합치면 자신은 45.44 퍼센트의 세금을 냈다고 하면서(김동호, 2005: 147)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의 몫을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땅을 사던, 저축을 하던 그것은 자유이며, 성경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것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것을 좋아하는 아버지이심을 강조하면서, "나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싫다. 나는 부하게 사는 것이 좋다...(김동호, 2001: 99)."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얼마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는 원칙적으로 비난받아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김동호, 2001: 80)."고 주장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강하고 부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까지 다소 극단적으로 보이는 주장을 하였다(김동호, 2001: 191).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청부론을 옹호했으나, 후에 『행복한 부자를 위한 5가지 원칙(2005)』에서는 '빈'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칭'을 선택하겠다고 하면서 깨끗하기 위해서는 가난해야 한다면 가난하게 살겠지만, "깨끗하게 사는 길이 가난함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또한 깨끗하기 위하여 일부러 가난하게 사는 삶을 선택하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청부론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여전히 김동호(2005: 20-21)는 청빈론에 대한 비판은 계속하였는데, 청빈론을 '삶의 도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삶의 도리'를 생각하는 것 자체는 훌륭하지만 지나쳐서 집착으로 빠지면 위험하다면서 '삶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이 있는 한 무조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거나 무통장 무소유로 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해마다 회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년을 50년에 한 번씩 지키게 하셨다(김동호, 2001: 82)."고 주장하였다.

5) "내가 갖고 있는 돈 중에는 나라 몫의 돈이 있다. 그 몫을 바르게 가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마 22: 21)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김동호, 2001: 13)."

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자들이 지나치게 '삶의 여유'를 부리는 것도 세상 살이를 힘들게 하지만, "삶의 여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삶의 도리'만을 강조하는, 정말 삶의 여유가 없는 자들의 부정적인 시각(김동호, 2005: 21)"도 역시 피곤한 일이라고 하면서 청빈론을 비판했다.

저축관

청부론과 청빈론의 차이는 저축관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청빈론자들이 지나친 저축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근거로 인용되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마태복음 6: 19-20)”는 말씀에 대해서 김동호(2001: 168)는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므로, 이 말씀은 돈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이 아니라 돈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이라고 주장한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리 작은 수입이라고 해도 저축을 하는 게 좋다(김동호, 2005: 45)”고 적극적으로 저축을 권면한다. 또한 목회자의 저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목회자의 저축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 때문이라고 볼 수 없으며, 목회자가 저축을 하지 않으면 말년에 교회와 교인들에게 폐를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회자도 저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동호, 2001: 48).⁶⁾

이상적 경제체제

성경적으로 이상적인 경제체제에 대해서 김동호(2001: 185)는 천민자본주의도 잘못이지만, 결과적 평등을 강조하는 공산주의도 성경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상적인 기독교적 체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

6) 대체적으로 재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저술들은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래리 버켓(Larry Burkett)은, 『하나님, 돈을 어떻게 쓸까요?(1975)』, 『돈 걱정 없는 가정(1989)』, 『부유한 자녀로 양육하라』(Burkett, and Osborne, 1991) 등에서 재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역시 규모 있는 저축을 강조한다.

한다.

사람들은 계급을 없애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가난한 데도 처할 줄 아는 사람과 부한 데도 처할 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옳다. 그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다(김동호, 2005: 83).

예수 믿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욕심내고 도전해야 할 것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일이다....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부자가 된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건강한 흐름이 유발 되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며 부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김동호, 2001: 191-2).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빈부격차를 허용하셨는가하는 점에 대해서 김동호(2005: 91-93)는 창조의 원리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물이나 공기가 흘러야 깨끗해지는데, 흐르기 위해서는 높낮이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공평하게 창조하지 않으신 이유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김으로써 사랑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창조의 원리이듯이, 돈도 부자에게서 가난한 사람에게 흐르는 것이 창조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⁷⁾ 따라서 천국의 삶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가지고 평등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약한 부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자신의 강한 부분을 통해 다른 사람과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김동호, 2005: 96)"이라고 주장했다.

7) 이에 반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가난한 사람에게서 부유한 사람에게 돈이 흐르는 것이므로 창조의 원리를 역행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타 청부론

이러한 청부론의 입장에 서 있는 저서로는 손경구(2002)의 『돈과 영적 성숙』, 베니 힌(Hinn, 2000)의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러셀 콘웰(Conwell, 2000)의 『부자가 되는 것은 인간의 의무다』, 브루스 윌킨슨(Wilkinson, 2000)의 『아베스의 기도』 등을 들 수 있다(김영봉, 2003: 237). 그리고 레베카 클라크(Clark, 1991)의 『크리스천도 잘 살아야 한다: 기독교인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나, 조엘 오스틴(Osteen, 2004)의 『긍정의 힘』, 쟈들과 크라우치(Jandl and Crouch, 2004)의 『곳간 원리: 크리스천의 부자 원리』, 스테이플포드(Stapleford, 2002)의 『그리스도인의 경제학 산책』 등도 같은 입장이다. 막스 베버가 말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에서 도출하는 김진홍(2001)의 재물관도 이러한 입장에 서 있으며, 박성수·김성주·김동호·하용조·홍정길(2004)의 『나는 정직한 자의 행동을 믿는다』의 저자들은 같은 신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보다 더 극단적으로 청부론적 견해를 보이는 주장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김성광(2008: 9-10)은 『부자 자격증: 나도 돈 많이 벌어볼까?』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가 부자로 못 사는 것은 부자 아버지의 세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의 길이라고 주장 한다. 유성은도 『행복한 부자(2008)』를 통해 "청빈만을 외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가난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도 장애가 된다. ... 돈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이웃에게도 덕을 베풀 수 있고, 자신의 삶도 풍성하게 할 수 있다. 행복한 부자를 다른 말로 표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행복한 부자'라는 표현으로 청부론을 펼쳤다.

2. 김영봉의 청빈론

청빈론자들 가운데도 다양한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 이 절에서는 먼저 김영봉(2003)의 견해를 중심으로 청빈론을 살펴본다. 김영봉(2003: 14-15)은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 그리스도인, 부자로 살아도 되는가?』의 서문에서 '청부론'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사회가 '부자 되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여기는 풍조가 만연해 있는데, 교회도 이러한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김영봉(2003: 25)은 청부론은 돈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기운 견해라고 비판했다.

돈에 대한 관점

먼저 돈의 본질에 대한 견해에서 청부론과 크게 다르다. 돈을 중립적으로 인식하는 청부론자들과 달리 김영봉(2003: 26-28)은 돈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며, 돈은 본질적으로 위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태복음 6: 24)"는 말씀을 인용한다. 또한 리처드 포스터(Richard Foster, 1992)의 『크리스천과 돈, 섹스, 권력』을 인용하면서 "돈은 단순한 중립적인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힘'(power) (김영봉, 2003: 27)."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예수님도 돈을 맘몬(mammon)이라고 불렀으므로(마태복음 6:24; 누가복음 16:13)⁸⁾ 돈은 영적 세력이며, 돈을 박철수(1989: 74)의 견해처럼 칼, 마약, 흡연에 비유했다.

8) 헬라어 맘몬이 한국 성경에는 "재물"로 번역되어 있으나 영어 성경 중 일부 (Revised Standard Version 등)에는 "맘몬"으로 번역되어 있다(박철수, 1989: 48-49). 돈이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 낸 산물이며, 돈은 돈 이상의 것이라는 시각은 박철수(1989:43-69)의 제3장 "돈의 성격"을 참고.

소비관과 부자관

김영봉(2003: 100)은 신앙적 의무를 다하고 나서 남은 돈에 대해서는 자유하다거나 누려도 된다는 주장은 성숙한 신앙인에게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숙되지 못한 신자들에게는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다보면 어느새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무를 다했다'는 말 자체가 예수님이 거부하신 율법주의의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우며(김영봉, 2003: 102), 책임을 다하고 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자유하다는 생각은 곧바로 '누림의 권리'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논리를 약간 비약시키면 사치조차도 부도덕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특권으로 여기게 된다고 비판했다(김영봉, 2003: 107).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마태복음 6: 24), 부자로 사는 것은 곧 재물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다.⁹⁾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하면서 욕구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김영봉(2003: 168)은 “부함과 강함과 높음과 뛰어난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다. 강한 자, 부한 자의 특권을 누리고 싶은 욕망에 넘어진다. 거룩한 목적을 향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속된 야망을 위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부가 위험한 이유로 첫째, 부는 영적 생활의 목을 조르며, 둘째, 스스로 보장하려는 유혹을 받게 되며, 셋째, 부는 우리 눈을 멀게 하고, 넷째, 부는 자신을 지배자로 만들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며, 다섯째, 부를 잘못 다루면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등의 다섯 가지를 꼽는다(김영봉, 2003: 40-43).

그렇기 때문에 김영봉(2003: 37)은 “오히려 스스로 가난해지셔서 가난을

9) 그런데 김영봉은 재물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즉 어느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으면 섬기는 것이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아닌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거나 투자가는 모두 부자이므로 재물을 섬기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다.

치유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가난에 참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림보다 질제가 그리스도인에게 더 어울리는 이유로 김영봉(2003: 111-113)은 첫째, 그리스도인에게는 가난하고 짓눌린 사람들을 살릴 책임이 있기 때문이고, 둘째, 욕욕을 제어하고 영적인 세계를 갈망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풍요를 마음껏 구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삶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저축관

김영봉은 또한 저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김영봉(2003: 129-130)도 모든 저축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자크 엘룰(Jacques Ellul)이 허용한 ‘검소한 정도의 집,’ ‘사업 확장이나 제품 연구를 위해 기금,’ ‘안정된 가정 경제를 위해 저축하는 것,’ ‘교육비’ 등 “선한 목적을 위한 단기적인 저축, 더 큰 나눔을 위한 저축, 재투자를 위한 저축, 단기적인 경제 조절을 위한 저축은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저축이 허용되는 것은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영봉(2003: 127)은 “미래의 안전을 저축한 돈에서 찾으려는 태도 때문에 저축이 불신앙의 표시가 된다.”고 하는 자크 엘룰(Ellul, 1950)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저축을 많이 해 놓고 미래에 대해 안심하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태도’라고 주장하면서, “저축에 대해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도 경고하셨던 불신앙의 위험에 빠진다. ‘노후에 쓸 돈이 충분히 마련되었으니 이제는 안심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맘몬 숭배자로 전락한다(128).”고 말한다.

그리고 요한 웨슬리(John Wesley)가 제시한 ‘할 수 있는 한 벌라,’ ‘할 수 있는 한 저축하라,’ ‘할 수 있는 한 다 주라’는 세 가지 경제원칙의 ‘할 수 있는 한 저축하라’는 말은 저축을 많이 해서 장래를 보장받으려는

의미가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아끼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김영봉, 2003: 129).

이상적 경제체제

김영봉은 자본주의 체제는 기독교인이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단언한다. 먼저 자본주의가 수용하는 경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는 “경쟁심의 뿌리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있다.”고 보고, ‘절대 공정’을 유지하게 되면 경쟁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공정경쟁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한다(김영봉, 2003: 177). 따라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 순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서구 경제를 부흥시킨 프로테스탄트 경제 윤리는 ‘부지런히 일 하면 그 대가를 얼마든지 누릴 권한이 있으니 열심히 돈을 벌라’는 말로 요약된다. 막스 베버는 이것을 ‘부르주아 경제 윤리’라고 불렀다. 그에 의하면 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한 개신교 윤리가 자본주의의 변영의 결과로 타락하여 생겨난 것이 부르주아 경제 윤리다. 이 사고에 빠지면 자신의 부를 하나님에 복 주신 징표라고 여기고 빈부 차이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한다. 청부론은 그 골격에서 이 전통을 잇고 있다.

과연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전제하고 그 안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최상의 선택인가? 기독교는 처음부터 체제 순응적이거나 체제 옹호적이지 않았음을 기억하자.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체제 전복적(subversive)이었다(김영봉, 2003: 205).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체제는 “빈부의 차이가 있는 가운데 서로 돕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빈부의 차이가 사라진 세상”이며, “사회주의적 평등이 줄 수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소임”이라고 김영봉(2003: 207-208)은 주장한다. 그리고 김영봉은 자신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자발적으로 나

누어주고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금욕주의적임을 인정한다.

기타의 청빈론

이러한 김영봉의 청빈론적 입장의 재물관과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저서로는 황호찬의 『돈, 그 끝없는 유혹(1996)』과 『돈, 그 유혹으로부터의 자유(2001)』, 자크 엘룰(Ellul, 1950)의 『하나님이나 돈이나』, 박철수(1989)의 『돈과 신앙』, 리처드 포스터(Foster, 1989)의 『크리스천과 돈, 섹스, 권력』, 로널드 사이더(Sider, 1990)의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도널드 크레이빌(Kraybill, 1991)의 『돈, 교회, 권력 그리고 하나님 나라』등을 들 수 있다(김영봉, 2003: 237).

3. 이상원의 재물관 논쟁 비판

이렇게 김동호(2001)가 청빈론을 비판하고, 다시 김영봉(2003)이 청부론을 비판하면서 한국 기독교계에서 재물관 논쟁이 시작되었다. 교계와 언론을 통해서 여러 형태의 논란이 있었지만 학회에서는 있었던 것으로는 2004년 5월에 한국기독교학회 소속의 한국기독교윤리학회와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산하의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경제 문제와 기독교 윤리: 기독교인으로서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의 연차 대회이다.

이 학회에서 이상원(2004)은 “청부론과 청빈론을 넘어서”라는 논문을 통해서 김동호와 김영봉의 견해를 평가했다. 이상원은 김동호의 『깨끗한 부자(2001)』, 『깨끗한 고백(2002)』, 『깨끗한 크리스천(2003)』을 통해서 청부론을 평가하고, 김영봉의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2003)』와 『사립의 기도(2002)』를 분석하여 청빈론을 평가했다.¹⁰⁾ 이 논문에서 이상원(2004: 70)

은 김동호의 견해를 ‘청부 유토피아니즘’이라고, 그리고 김영봉의 견해를 ‘청빈 유토피아니즘’이라고 평가했는데, 유토피아니즘이란 “인간의 힘과 지혜로 어떤 이상이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 신념 체계”를 말한다. 즉 김동호와 김영봉의 견해는 둘 다 성경의 가르침을 단편적으로만 반영해 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균형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상원(2004: 59)은 비판했다.

김동호의 견해에 대한 이상원의 비판

이상원(2004: 65)은 김동호가 사회의 구조적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성경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있어서 미숙하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면 김동호가 청부론의 근거로 언급한 빌립보서(4: 2)의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이라는 구절은 '일용할 양식의 차원에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김동호는 이를 부자로 살아도 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은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비판했다(이상원, 2004: 66).¹¹⁾

그리고 김동호는 부를 획득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정당하면 청부라고 했지만, 이상원(2004: 65)은 획득과정이 정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것도 역시 정당해야 비로소 명실 공히 청부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동호가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자유롭게 써도 된다고 하는 주장은 청지기 사상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이상

10) 김동호의 『깨끗한 고백(2002)』과 『깨끗한 크리스천(2003)』은 재물관을 설명하는 서적은 아니다. 다만 이곳에서도 김동호의 청부론적 견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상원은 인용하고 있다. 김동호의 두 번째 재물관에 대한 저술은 2005년에 발표한 『행복한 부자를 위한 5가지 원칙』이다. 또한 김영봉의 『사권의 기도(2002)』도 역시 재물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서적이다.

11)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김동호(2005: 234)는 2005년에 발표한 『행복한 부자를 위한 5가지 원리』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가운데 부자가 아닌 사람도 있다고 하면서 그 예로 "바울은 부자가 아니었다"고 적고 있다.

원, 2004: 70). 따라서 김동호의 견해는 “기독교인이 풍부한 청부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꿈꾸고 있다”는 점에서 '청부 유토피아니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이상원, 2004: 71).

김영봉의 견해에 대한 이상원의 비판

이상원(2004: 75)은 김영봉의 견해도 역시 다른 극단으로 치우쳐 ‘청빈 유토피아니즘’의 경향을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다. 먼저 돈을 김영봉이 칼, 마약, 흡연 등에 비유한 것은 “물질을 악하게 보고 영혼을 선하게 보는 영지주의적 이원론의 선입견”이 들어 있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돈의 역기능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김영봉의 견해를 청빈을 넘어 금욕주의적인 것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상원(2004: 77-79)은 청부론에서 추구하는 것이 의로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김영봉은 마치 청부론자들이 불의한 부를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한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아브라함, 욥, 솔로몬 이외에는 의로운 부자들이 없다는 김영봉의 주장은 성경적 근거가 없으며,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부를 축복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명시적으로 거듭하여 주셨는데, 이 약속을 추상적이 개념으로 환원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상원(2004, 84)은 현실적으로 김영봉이 주장하는 “빈부의 격차가 철폐된 사회를 이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게다가 “빈부의 격차가 철폐된 사회가 정말 기독교적인 이상적인 사회인가도 의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김영봉이 강조하는 회년 제도는 빈부의 격차의 철폐를 요구하는 제도가 아님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50년마다 한 번씩 빛을 탕감해 주는 회년의 조치만으로 빈부의 격차가 철폐될 수 없으므로 “회년의 요구는 사회의 전복에 있지 않고 개선에 있다(이상원, 2004: 85)”고 주장했다.

이상적 경제체제

이상원(2004: 95)은 기독교적으로 “진정한 이상사회는 물질의 누림이나 물질 소유의 과다 혹은 평등 여부를 넘어서서 모든 현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는 사회이며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사회”라고 주장하면서 칼빈의 탁월한 혜안에 주목하자고 한다. "칼빈은 신명기 16장 11절을 해석하면서, 가난한 자와 부자는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 안에서 가난한 자는 받고 부자는 나누어 줌으로써 부자는 가난한 자와 똑같이 되지 않으면서도 그들과 교류를 가지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자들의 필요를 채워 주게 된다고 말한다."며 이러한 "칼빈의 해석은, 불의한 체제를 정당화시켜 주는 기독교인들의 자기 정당화의 논리가 아니라 기독교 사회사상의 터전에서 나온 건설한 사회 해석으로서 음미할 가치가 있는 언명이다."라고 이상원(2004: 96)은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이상원(2004: 86)은 청부-청빈 논쟁의 공헌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적절한 신앙의 표현 무대인 돈의 문제를 솔직한 논의의 중심 주제"로 삼아 양 극단을 강조해 "각자가 자신의 입장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 봄으로써 각자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무엇이며, 또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쟁점을 분명하게 부각시켰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4. 이상원의 비판에 대한 평가

이상원(2004)의 입장은 청부론과 청빈론 모두 성경적 재물관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양비론(兩非論)이다. 이상원의 지적은 옳지만, 그가 말하는 중립적 견해는 사실 이 논쟁 이전에 이견창(1991), 이상규(1991), 전광식(1991) 등 많은 신학자와 경제학자들이 성경적 재물관이라고 주장했던 견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이후에도 재물관 논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양창삼(2007)도 『하나님의 부자 경제학』 제4장 '청부가 될 것인가, 청빈이 될 것인가?'에서 역시 "청빈이나 청부냐를 떠나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로 설 필요가 있다."고 하여 양비론에서 머물고 있다(양창삼, 2007: 105).

또한 양비론적 견해를 밝히는 주장들도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알수록 행복해지는 돈의 비밀』에서 조성표(2008: 49)는 부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축복임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면 청부론과 가깝다. 그런데 결론에서 단순한 삶을 강조하는 부분(조성표, 2008: 201)을 보면 청빈론과 가깝게 보인다.

김동호가 최근에 '부(富)'보다는 '청(淸)'을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기독교인이라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 강조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청'은 당연한 전제 일 뿐이다. 깨끗하다는 전제하에 부유해도 좋으나 아니냐, 돈에 의지할 가능성이 있는 저축을 해도 좋은가 하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상원은 총론적으로는 양비론적 입장을 견지했지만, 돈에 대한 관점, 소비관, 저축관 등의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김영봉의 견해보다는 김동호의 견해를 더 지지했다. 학회 발표 당시 논찬을 맡은 홍순원(2004: 105)이 이상원(2004)은 "김동호의 청부론을 비판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물질을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선물과 도구로서 이해하는 김동호의 입장에서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한 것은 적절한 평가였다.

III. 재물관 논쟁시 고려 사항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기독교계에서의 재물관 논쟁의 핵심은 깨끗한가 더러운가가 아니라, 돈이 중립적인가, 재물을 누리도 되는가, 저축에 의지해도 되는가, 자본주의가 기독교적인가 하는 점 등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청빈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난하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사는 것이 가난하게 사는 것인가? 중간 수준으로 사는 정도면 수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최빈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복은 돈의 많고 적음과 관련이 없다는 등 영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피하는 양비론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대부분 자신의 견해를 지지하는 성경 본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켰으나, 성경 본문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을 찾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자크 엘룰(Jacques Ellul, 1950: 35-36)이 지적한 바와 같이 첫째, 성경에서 언급한 돈이나 재물에 대한 기술은 단편적인 제시이므로 일부분을 떼어내어 고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고, 둘째, 그 본문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을 사람과 돈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성경이 현대인을 위한 모든 질문의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경의 돈이나 재물에 대해 기록한 특정 구절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에 맞게 해석하기 보다는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 나타난 성경적 세계관이 어떠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재물관 논쟁에서 논의되지 못했으나 청부론과 청빈론 중에 어떠한 견해가 더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견해인지 답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논제들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서 성경적인 재물관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¹²⁾

1. 문화명령과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고찰

현대인은 빈곤층조차도 비누, 얼음, 커피 등 수 세기 전 중세 사회의 귀족보다 더 많은 물질적 혜택과 높은 의료수준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느 수준이 크리스천에게 용납할 수 있는 소비수준인가? 집은 어느 정도 규모이어야 하고, 자동차나 핸드폰은 누려도 되는가? 영화나 연극 등 문화 활동에는 어느 정도 돈을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문화적 발전의 결과로 얻어진 진보와 산업혁명 이후 지난 200년 동안 이룩한 경제성장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또는 물질적 소비 수준의 향상을 부정할 것인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인지 등을 분별해야 한다. 메노나이트(Mennonites) 등 재세례파(Anabaptists)처럼 이러한 물질문명을 부정할 것인가, 아니면 문화적 진보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인가?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문화관과 역사관에 대한 평가가 없이 성경적 재물관을 적절히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성

12) 여기서 윤리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다.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보다 더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청빈론에서는 암묵적으로 부자들의 비윤리성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볼 때 부유한 나라들의 부패지수가 더 낮은 것은 사실이다(권명중, 2008: 151). 그러므로 부자가 더 윤리적인지, 가난한 자가 더 윤리적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집단적 윤리성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

경적 문화관의 측면에서 재물관을 평가하고자 한다.

기독교 문화관과 문화명령

리차드 니버(Niebuhr, 1951)는 『그리스도와 문화(Christ and Culture)』에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나타났던 문화관들을 '배격(Christ against Culture),' '지배(Christ above Culture),' '대립(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수용(Christ of Culture),' '변혁(Christ, Transformer of Culture)'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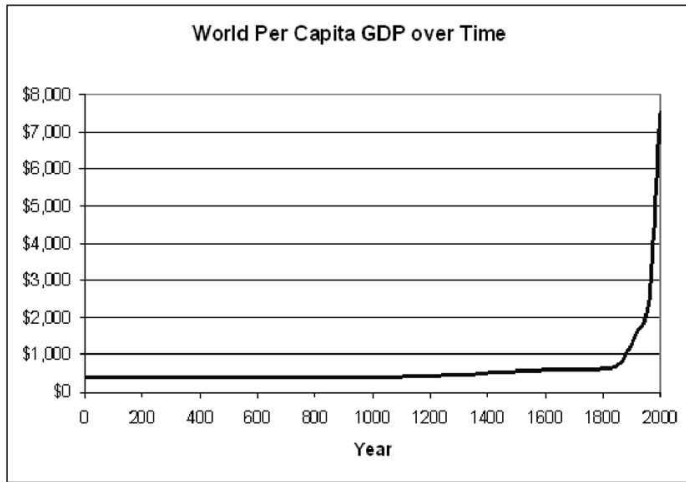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변혁적 문화관'을 가장 성경적인 문화관으로 평가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60억 명이 넘는 인류를 동시에 창조하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후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다(창 1: 22, 1: 26-28). 그리고 홍수로 전 인류를 심판한 이후에 다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9: 2, 7)"고 반복하셨으므로, 이 '문화명령'은 타락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월터스(Wolters, 1985: 55)는 "창조란 한 번 만들어진 다음에는 정적인 양으로 남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창조는 성장하고 개발되며, 이 성장과 개발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 속에 함축되어 있는 발전의 가능성들을 실현시킬 사람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틸리케는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으나 인간은 삼위가 신중하게 고려 끝에 창조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만드신 존재(Man, the risk of God)'라고 불렀으며, 이렇게 창조한 인간에게 문화의 일꾼의 임무를 부여했다고 했다. 따라서 아브라함 카이퍼(Kuyper, 1980: 53)가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란 은혜로 주신 선물인 동시에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며, 우리는 "자연과 인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가능성들을 개발해야 한다." 그래서 니콜라스 월터스토프(Wolterstorff)는 문화명령을 '초청(invitation)'이라고 표현했다.

변혁적 문화관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경제성장

인류가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생존에 필요한 정도의 경제성장은 꼭 필요하다. 산업혁명으로 근대적 경제성장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인구 증가가 매우 더디게 일어났다. 전 세계의 인구는 주후 1년에 약 2억 3천만 명이었는데 이것이 두 배로 되는데 1,000년이 걸렸다(권명중, 2008: 202).

이렇게 인구 증가가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서 맬더스는 영국의 빈곤법(British Poor Laws)에 관한 논문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 부양에 필요한 식량수요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생산량을 초과하면 식량 부족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농토 관리가 안 되면 기근이 오고, 그 결과 영양의 부족으로 질병에 대처할 수 없게 되어 인구가 다시 감소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전쟁, 기근, 질병 등 인구증가의 저해요인(Malthusian checks)으로 인하여 인구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크게 증가하지 못했다(Stapleford, 2002: 353).

그런데 서구를 중심으로 16세기에 비로소 상업이 발달하고,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다. 일인당 소득(per capita GDP)의 2000년간 장기 추이를 나타내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천 년 동안 인류는 거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지 못하다가 영국이 산업혁명을 이룩한 1800년경부터 급속하게 성장하기 시작하여 지난 200년 동안 놀라운 경제성장을 경험했다. 그 결과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완성되었다고 평가되는 1830년에 10억 명이 된 인구는 1930년에 20억 명이 되어 불과 100년 만에 두 배가 되었다. 근대적 경제성장이 가능해진 이후에 인구는 더욱 급속하게 증가하여 30년 만에 다시 10억 명이 증가해 30억 명이 되었고, 50억 명으로 증가하는 데는 15년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그리고 50억 명에서 60억 명이 되는데 다시 15년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Stapleford, 2002: 357).



<그림 1> 세계평균 1인당 국내총생산의 추이

출처: Beinhocker (2006).

이제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다 채운 것인가? 지구의 구석구석에 인간의 발자취가 닿았으므로 번성하라는 명령은 다 완수되었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라는 '대위임령(마 28: 19-20)'으로 대체되어 문화명령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가? 인구가 땅에 충만하기 때문에 인구증가를 위한 경제성장은 불필요한 것인가?

전 세계의 인구 증가율은 1970년의 최고 2.2%에서 현재 1.6% 미만으로 낮아졌다. 세계은행의 전망에 의하면 향후 1.0% 미만으로 하락할 것이고 2030년까지 전 세계 인구는 80억 명을 조금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인구증가를 위한 경제성장은 불필요할지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산업화된 선진 지역에서는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심지어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저개발국에서 인구 폭발이 일어나고 있다

는 점이다. 오늘날 아직도 세계의 83%가 가난하다. 게다가 저개발국가의 저소득층은 단기적인 생존을 위해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도 많고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개발국가의 경제성장은 꼭 필요하다.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멈추어야 할까? 폴 에릭(Ehrlich, 1968)은 『인구 폭탄(Population Bomb)』에서 천연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인류는 1990년까지 기아가 세계적으로 만연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이 연구에 기초하여 1972년에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Limits to Growth)』를 발표했다(Stapleford, 2002: 355). 그러나 로마클럽의 예측은 대부분 실현되지 않았다. 경제학자 줄리안 사이몬은 1981년에 로마 클럽에서 고갈될 것이라고 제시한 천연자원 목록 가운데 어떤 것이든 다섯 가지를 선택해서 그 실질 가격이 향후 10년간에 상승한다면 천 달러를 내놓겠다는 내기를 제안했다. 이에 폴 에릭이 크롬, 구리, 니켈, 주식, 텅스텐의 항목을 선정했는데, 결국 10년 후에 폴 에릭이 저서 1,000달러를 지불해야 했다(Stapleford, 2002: 355). 인류가 이렇게 맬서스의 악순환을 극복하는데 성공하고, 로마클럽의 예상과 달리 천연자원의 평균 가격이 치솟지 않는 이유는 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감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인간이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가난할수록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가 성장한다고 반드시 인간의 행복도 더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¹³⁾ 행복과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13) 이스털린(Easterlin, 1995)은 ‘경제성장이 인간의 운명을 개선하는가’라는 연구를 통해, 일본의 경우 1950년에서 1970년 사이에 소득이 7배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행복해졌다는 응답은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이스털린 패러독스라고 부르게 되었다. 또한 레이야드(Layard, 2005)는 유엔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연구에서도 방글라데시가 가장 가난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으며, 이 연구에서 남한은 54개국 가운데 23위에 그쳤다. 그리고 영국의 신경경제재단(NEF, 2009)은 2009년에 삶의 만족도, 기대 평균 수명, 생존에 필요한 면적, 에너지 소비량 등을 중

여러 연구가 있으나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¹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행복은 반드시 경제성장과 비례적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 빈곤선 아래에 있으면서 행복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원조나 빛의 탕감만으로 궁핍한 나라들이 궁핍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다.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가난한 나라들도 생산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974년 노벨상 수상자 군나르 뮈르달(Myrdal, 1970: 13)은 『빈곤의 도전』에서 “원조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저개발제국 자체 내에서 필요하게 되고 있는 사회적 및 경제적 제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대외원조를 받았던 나라 중에 지금 원조국이 된 유일한 나라인 우리나라처럼 다른 최빈국들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경제성장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¹⁵⁾

가난은 선택될 수 있으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없는 궁핍은 없애야 할 악이다. 로날드 사이더(Sider, 1977)는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에서 국제적 빈부격차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산업혁명 이후 200여 년 동안 일부 고소득국가 약 5억 명과 중상소득국가 약 11억 명 – 한국은 이에 포함됨 – 은 기아에서 벗어났지만, 아직도 30억 명의 인구가 가난을 해결 못하고 있다. 그 중에 무려 13억 명의 인구들은 아직도 극심

합하여 143개국의 행복지수 순위를 발표 했다. 이 연구에서 미국은 114위를 기록했고, 1위에는 코스타리코로 발표되었다. 한국은 68위였다.

14) 예를 들면, 스티븐슨과 울퍼스(Stevenson and Wolfers, 2008)는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여러 여론조사에서 얻은 삶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부국의 국민들이 더 행복하고, 부자일수록 더 행복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연 소득이 25만 달러를 넘는 사람의 90%가 자신의 삶에 매우 만족했지만 연소득 3만 달러가 안 되는 사람 중에선 42%만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 물론 경제성장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물질적 진보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모두 진보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하우즈마르트가 『자본주의와 진보사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질투하는 두 자매와 같다.

한 공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Sider, 1997: 21). 사하라사막의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5세 이하의 아동 가운데 3백만 명이 비타민 부족으로 시각 장애를 겪고 있고, 비타민 A의 부족으로 어린이의 2/3가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져 죽게 된다(Stapleford, 2002: 357-66). 이러한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성장은 필연적이다.

사이더(Sider, 1977: 13)는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수입의 1%만 사용해서 가장 가난한 10억 명의 사람들의 삶을 50% 개선시키는데 단 일 년이면 해결된다고 역설하면서 부유한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를 돕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등 부유한 사람들이 더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만¹⁶⁾ 그도 원조나 외적인 도움으로 가난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생산활동을 장려하지 않고, 정부나 교회 등 자선단체만의 힘으로 기아와 공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대부분 동의한다.¹⁷⁾ 따라서 전 지구적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반드시 필요하며¹⁸⁾ 가난의 극복은 일자리를 통해 이루어야 한다(Stapleford, 2002: 223).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의 부패 지수가 더 낮다는 사실을 볼 때, 경제성장이 보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사회

16) 사이더(Sider, 1977: 206-207)는 구 식민주의자들의 잘못과 현재의 잘못된 경제구조를 강조하며, 미국과 영국에서 점차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지적하며 시장경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에서도 박득훈(2004)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사실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사이더는 시장경제가 다른 대안들보다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더 뛰어나다는 것도 인정하고(Sider, 1977: 204),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도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점을 한국의 예를 들어서 인정한다.

17)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장경제가 유일한 대안인가 아니면 부작용이 보다 적은 다른 대안이 있는가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박득훈(2004)은 유고슬라비아에서 실험되었던 노동자조합회사 형태의 생산관계의 대안모델과 생산조정제의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기도 한다.

18) 제프리 삭스는 2025년쯤에 지구상에서 절대빈곤이 사라질 것이라고 단언을 한다(권명중, 2008: 80).

를 건설하는데도 도움을 준다.¹⁹⁾ 경제성장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재물에 의지하고, 거기서 안전을 찾는 것이 문제이다.

경제성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

기독교 역사에서 이윤추구나 기업 활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보편적이었다. 성 제롬(St. Jerome)도 “상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고, 성 어거스틴(St. Augustine)도 “기업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라고 했다(Chewning et. al. 1990: 16에서 재인용). 그 이유는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 세습이나 부당한 방법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과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부자들에게 대한 사회적 평가가 급격하게 바뀌었다. 권명중(2008: 106)에 의하면 런던의 의사 버나드 맨드빌(Bernard Mandeville)은 『꿀벌의 우화(Fable of the Bees: Private Vices, Public Benefits)(1795)』에서 “부자가 허영심이 많고 사치스럽기는 하지만 그들이 지출을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고용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의 생존을 돕는 것이 바로 부자이며, 부자가 사회에서 가장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후 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은 부는 한정된 것이 아니고 생산과정을 통해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도덕적 가치'가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후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은 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청교도들은 이를 삶으로 실천했다. 권명중(2008: 110)은 “19세기 미국 개신교 교파들은 “하나님은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공적인 삶을 살라고 요구한다.”라고 설교하기 시작했다고 적고 있다. 심지어는 목사인 토머스

19) 국제투명성지기가 발표한 투명성 지수를 보면 부패지수가 낮은 투명한 나라 상위 20개국 중에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 이하인 나라는 하나도 없으며, 부패가 심한 나라들은 대개 최빈국들이다(권명중, 2008: 151).

헌트가 1836년에 쓴 『부에 대하여: 부자가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라는 사실은 성경이 증명한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였다."고 적고 있다. 추닝 등(Chewning et. al. 1990: 16)은 『신앙의 눈으로 본 경영』에서 적어도 북미지역에서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경제성장이 불필요하다는 - 인용자 주)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주신 방법으로가 아니라, 땅을 경작하고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의 자녀들이 겨우 목숨을 연명할 정도로 간신히 살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먹거리를 허락하셨고, 온 산과 바다에 풍요로운 종으로 가득 채우셨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과 창조의 동역자로서 이 세상을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리고 적절한 옷과 주거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브리안 그리피스(Brian Griffiths, 1984: 61)는 적절하게 정리하고 있다. 또한 빌스(Beals, 1978)도 『가난을 넘어서(Beyond Hunger: A Biblical Mandate for Social Responsibility)』에서 인류의 문화적, 경제적 발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잘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절대빈곤의 타파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할 역할 중의 하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문화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제적 성취를 부정적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 문화관에 입각한 재물관 평가

문화명령을 고려하고 변혁적 문화관을 수용하며, 경제성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면 어떠한 재물관이 더 성경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청부론에서는 하나님의 몫과 이웃의 몫을 떼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자유롭게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에 청빈론에서는 자신을 위해서는 가능한 절제해서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의 사업과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청빈론은 니버(Nieber)가 분류한 문화관의 유형 중에는 문화배격론의 입장에 포함된다. 니버는 초대교회나 퀘이커(Quaker), 메노나이트(Mennonites), 아미쉬(Amish) 등 재세례파(Anabaptists)들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화관을 수용하는 자들은 금욕주의적 재물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김영봉(2004: 76)은 "극단적 금욕주의는 기독교 정신에 위배되지만, '금욕적 경향을 제거한 기독교' 역시 상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기독교는 금욕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전한 의미의 '절제'와 '금욕적 경향'은 분명히 구별된다. 이롭다운 부부 생활을 허용하는 기독교의 결혼관은 '절제'라고 볼 수 있지만 '성직자'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금욕'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소비수준에서 금욕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한 소비생활과 문화생활을 허용하는 것과 분명히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청빈론은 반문화적 문화관에 속한다.

니버는 이러한 반문화적 입장을 "필요하나 부적절한 입장"이라고 규정하였다. 그 이유는 크리스천은 세상과 달라야 하지만 문화로부터의 퇴거와 포기는 건전한 참여로 균형 잡혀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있다고 과시를 하거나 사치하거나 낭비하는 것은 분명히 기독교적인 태도는 아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절제를 하면서 각 사회의 수준에 비추어 어느 정도 문화생활을 허용해야 세상 속에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기독교적으로 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사회 경제적 번영과 발전은 불신자들의 몫이라고 볼 수 없다. 문화와 경제의 발전은 기독교인들도 함께 추구해야 할 문제이다.

김동호(2005: 24)는 "금욕주의적인 사고방식 속에는 남이 여유를 가지고 그것을 즐기는 것을 곱게 보지 못하는 옹졸함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랜디 알콘(Alcorn, 2003: 63)이 『돈, 소유 그리고 영원』의 제2장 "

금욕주의의 약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난이 곧 경건함과 동의어는 아니며, 금욕주의는 하나님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의도일 수 있고, 다른 생활 방식의 사람들을 공정치 못하게 정죄할 수 있으며, 또한 금욕주의의 여러 형태는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은 가난하게 사셨지만 금욕주의자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김동호의 청부론이 니버가 가장 바람직한 문화관으로 여겼던 변혁적 문화관의 유형에 속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이상원(2004)의 지적과 같이 모두가 청부가 되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 성장을 긍정한다고 해서 모두가 부유해지는 사회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종종 목표와 결과는 다르다. 결과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지만 추구하는 것은 부유함이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마태복음 6:33)'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화 변혁적 견해를 수용한다면, 경제성장의 과실을 어느 정도 누리는 것을 인정하는 청부론의 견해가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무제한적인 누림이나 무제한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탐욕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적절한 경고를 하지 않으면 인간은 무한히 물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즐기려고 하는 성향이 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청부론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러한 무절제하고 무제한적인 누림이 아니다.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즐긴 것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선택된 인류가 문화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통치하면서 이룩한 문화적 과실을 어느 정도 누리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균형 잡힌 성경적 재물관이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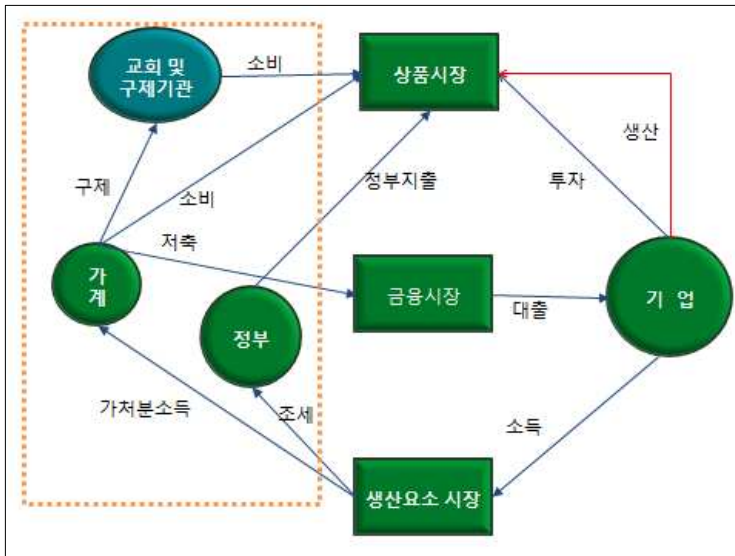
2. 거시경제적 측면에 대한 고려

두 번째로 재물관 논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점은 거시경제적 측면이다. 청부론에서는 저축을 강조하며 특히 노년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을 용납하는 반면에 청빈론에서는 저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이나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 이러한 저축관의 차이에 대해서 이상원은 김동호의 견해를 지지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논의 속에 저축이 거시경제적으로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물을 미시경제적으로 개인이 가진 소유물의 소비, 구제 그리고 저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미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쓸 것인가, 즉 자기를 위해 쓸 것인가 아니면 남을 위해 쓸 것인가? 저축을 할 것인가 나누어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거시경제적으로 자본의 역할과 저축의 중요성을 논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 기독교 학계에서 재물관 논쟁이 주로 신학자나 목회자들 중심으로 논쟁이 전개되어서 돈이나 재물이 가지는 생산요소로서의 의미가 강조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저축의 사회경제적 의미는 무엇이며, 재물이 자산이나 자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 않고는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재물관 논쟁의 문제점을 거시경제적 순환 모형을 통해 살펴보고, 저축을 통한 자본의 형성이 왜 중요한가를 다시 강조함으로써 바람직한 재물관이 어떠한 것인지 판단하고자 한다.

구제를 고려한 거시경제 순환 모형

거시경제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순화된 소득순환모형에 의하면 생산과정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요소공급자에게 귀속된 이후에 다 소비되지 않고 일부가 저축으로 축적되고 이 저축이 금융기관을 매개로 해서 기업의 투자 자금으로 투입되어 생산이 증가하게 된다. <그림 2>는 단순화된 거시순환



〈그림 2〉 교회 및 구제를 포함한 거시경제 순환 모형

모형에 교회와 구제를 포함 시킨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기독교계에서 재물관 논쟁에서 논의된 것은 이 <그림 2>의 좌측 점선 부분에 있는 것에 국한되었다. 소득세를 내고 남은 가처분 소득으로 각 가계는 개인소비와 구제 그리고 저축으로 지출하는데, 재물관 논쟁은 결국 가계에서 '구제'와 '개인소비'로 가는 파이프의 어느 것을 더 굵게 해야 하는가 하는 논쟁이다.

반면에 저축이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을 통해서 기업에 투입되어 투자의 형태로 다시 수요를 창출하고, 이는 결국 생산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이 과정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김영봉(2003: 130)은 재투자를 위한 저축은 인정했으나 자본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계의 저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김동호(2001, 28)의 경우에는 “돈이 잘 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왜 경제가 어려워지는 걸까? 돈이 돌지 않으면 더불어 경제가 나빠지기 때문이다.

(중략) 하나님은 은사로 주신 물질을 선한 청지기처럼 잘 사용하여 세상에 돈이 잘 돌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시경제 순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저축이 기업의 투자 자본의 원천이 되며 기업은 생산성의 확대를 위해서 자본재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저축이 유익한 것이라는 설명이 없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돈이 잘 돌도록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결국 지금까지 재물관 논쟁은 거시경제순환 모형에서 볼 때 한쪽 부분에 국한된 논의를 한 것이었다.

저축과 자본형성의 중요성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마르크스도 역시 자본의 원시적 축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산주의가 붕괴한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본주의로 편입되었다.²⁰⁾ 그런데 오늘날에도 경제성장이 서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자본이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로널드 사이더(Sider, 1977: 206-207)도 세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시장경제에 참여할 자본이 없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저개발국이 공장을 세우고 하부구조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본이 국내에서 축적된 것으로 부족하면 해외에서 차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자를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하는데,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의 경우 그렇지 못했다. 한국 경제 성장 초기에 자본이 부족해서 일본과의 과거사 청산 대가로 3억불, 무상원조로 3억불의 차관을 들여와서 포항제철을 건립했다. 또한 월남 파병으로 젊은이들의 피를 흘린 대가와 중동 건설을 통해서 필요한 자본을 조달했다. 심지어는 독일에 간 호사와 광부를 파송하여 벌어들인 외화가 한국 경제성장의 초기 싹짓돈

20)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김영봉(2004)은 자본주의체제는 비성경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계는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자본주의가 성경적인가 아닌가는 논외로 한다.

(seed money)의 역할을 했다.

그런데 한국과 대만 등 소수의 국가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자본주의적으로 경제성장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남미 최고의 경제학자라고 평가를 받은 바 있는 에르난도 데 소토(Hernando de Soto, 2000: 13)는 『자본의 미스터리: 왜 자본주의는 서구에서만 성공했는가』에서 비서구 국가들이 자본주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으로 자본 부족을 지적했다.

자본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자본은 노동생산력 증대를 통해서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Soto, 2000: 13). 그런데 소득을 다 소비하고 저축을 하지 않으면 자본형성이 안 된다. 각 개인들은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자산은 담보를 통해 신용대출이나 공공시설과 같은 형태로 전환되어 더 큰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소토(Soto, 2000: 41-42)에 의하면 자본의 힘을 설명하는 이론은 "한 장의 벽돌이 원자의 폭발이라는 형태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아인슈타인의 이론과 아주 흡사하다. 그런 식으로 유추하면, 자본은 가난한 사람들이 세운 건물들을 이루고 있는 수조 개의 벽돌에서 분출될 수 있는 잠재적 에너지를 발견하고 이끌어낸 결과물"이라고 하면서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토(Soto, 2000: 43-45)는 중세 라틴어의 자본(capital)의 어원은 가축의 머리라고 하면서 가축의 머리가 자본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흥미롭게 기술한다.

가축은 단순히 고기가 아닌 중요한 부의 원천으로 여겨졌다. 가축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에서 격리할 수 있고, 손쉽게 숫자를 파악할 수 있어서 관리하기 편한 자산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가축을 다른 사업과 연계하면 우유를 비롯해 가죽, 양모, 고기, 연료에 이르기까지 부가적인 부나 잉여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또 가축은 출산을 통해 새끼를 얻을 수 있다는 아주 유용한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자본'이란 단어는 자산의 물질적인 차원과 잉여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차원을

확보하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는 의미에서 출발한다.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에서 경제학의 창시자들이 연구하는 책상까지는 고작 몇 걸음이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런 그들은 일반적으로 '자본'을 잉여생산을 유발하고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한 국가의 자산으로 정의한다. (중략)

스미스는 노동 분업과 그에 따른 시장에서의 생산품 거래인 경제 전문화(economic specialization)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원이며, 따라서 '국부(國富)'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전문화와 거래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본인데, 스미스는 그것을 생산을 목적으로 축적하는 자산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자본은 단순히 축적된 자산이 아니라 새로운 생산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의 잠재력이다. 물론 이런 잠재력은 추상적인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전에 반드시 명확한 형태로 고정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만약 이러한 '전환과정'이 없다면, 절대로 자본은 창출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경제성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자본이 저개발국가에게 부족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생산력이 낮아서 소비를 하고 나면 축적할 것이 전혀 없어서 자본축적이 안 될 수도 있고, 소토(Soto, 2000: 54)의 주장처럼 축적된 자산에서 자본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재산권 제도가 확립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²¹⁾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21) 소토(Soto, 2000)는 제3세계에서 자본이 부족한 이유는 축적된 자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내에 축적하여 보유한 자산으로부터 자본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약 100여명의 소토 연구팀은 5년 동안 필리핀, 이집트, 아이티, 페루 등 4개국에서 직접 가난한 사람들이 보유한 자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왜 그 자산이 자본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가를 조사하였다. 이들의 추계에 의하면 제3세계와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지만 합법적인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은 부동산의 총가치는 최소 9조 3천억 달러로 이는 미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폐의 액면가를 합한 액수의 약 2배에 해당하며, 세계 20대 선진국들의 주요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모든 회사들의 자산을 합한 총액과 맞먹고, 1989년 이후 10년 동안 제3세계와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에 유입된 직접적인 해외투자 총액의 20배를 훨씬 상회하고, 지난 30년 동안 세계은행이 대출한 모든 대출금의 46

기술수준과 문화 수준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고, 조선 후기 사회처럼 탐관오리의 수탈로 인해서 축적이 안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높은 저축률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 등 아시아 국가가 고도성장을 달성 한 요인 중의 하나로 높은 저축률을 꼽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자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자를 긍정적인 역사는 길지 않다. 한국 개역판 성경에는 '이자'라는 단어가 1번, '고리대'라는 단어가 1번, '이식'이라는 단어가 14번, 등장하지만, 스테이플포드(Stapleford, 2002: 188-89)에 의하면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King James Version)'에는 '이자(interest)'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 대신 '고리대금(usury)'은 구약에서 15번,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2번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구약성경에서 사용한 고리대금의 히브리어인 '나샤크(*nashak*)'는 '과도한 이자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반면에, 신약에서 사용한 그리스어 단어인 '토코스(*tokos*)'는 '놓는 것, 생산하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구약에서 금한 이자는 사실 고리대를 말하는 것이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합리적인 투자가 갖는 열매로서의 이자는 승인하시는 것처럼 보인다고 스테이플포드는 주장한다. 스테이플포드(Stapleford, 2002: 194)는 정체가되었던 농경사회는 제로섬 사회였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니케아 회의(AD. 325)에서 '성직자'에 한해서 이자가 금지되었는데, 성 제롬(340-420)은 모든 사람에게 고리대금을 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성 암브로즈

베에 해당하며, 그 기간 동안 모든 선진국들이 제3세계의 개발을 위해 원조한 총액의 93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했다(Soto, 2000: 36-39). 이렇게 많은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본으로 전환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자산이 불완전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불완전한 형태로 존재하는 이유는 이렇게 자산을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명시화 과정이 없기 때문이며 이것을 바로 '자본의 미스터리'라고 했다(Soto, 2000: 15).

(340-397)가 신명기(23:20)의 “타국인에게 네가 꾸이던 이식을 취하여도 가 하거니와”라는 구절의 ‘타국인’을 ‘하나님 백성들의 적’이라고 해석을 하고 이를 교회가 받아들여 유태인 등에게 고리대금업을 허용해 주고, 이들과의 자본거래를 했다. 그리하여 유태인들은 자본거래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후에 자본시장이 형성되면서 자본이 귀중한 자원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루터는 초기에는 고리대금에 반대했지만, 후에 고리대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였다(Stapleford, 2002: 19195-196). 그리고 칼빈은 구약의 이자금지 조항은 소비대부를 금지한 것이지만 산업대부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이자 대부를 허용하여 역사상의 큰 전환점을 이룩하였다(Biéler, 1985: 103). 그리하여 부르주아들은 칼빈의 성경해석이 보다 타당하다고 하여 개신교로 개종을 하였으며 19세기 말에 막스 베버(Weber, 1920: 9)는 이를 중시 여겨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의 뿌리라는 베버명제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저축과 이를 통한 자본의 축적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빈론과 청부론 중에서 어떠한 견해가 더 균형 잡힌 시각인가? 김영봉(2003)의 이상사회처럼 모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사회가 설령 가능하더라도 저축을 하지 않고 모두 구제를 하여 다 소비하면 생산성의 향상이 인구증가를 따라갈 수 없어 재앙이 오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물관 논쟁에서 제로섬 사회의 분배만이 논의되고 있을 뿐 생산에 대한 강조는 찾기 어렵다. 랜디 알콘(Alcorn, 2003: 60)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생산하는 것을 '세상적' 또는 '비종교적'이라고 하고 아무 것도 생산하지 않고 그들에게 의존하기만 하는 사람들을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따라서 균형잡힌 재물관을 논의 하려면 생산과 자본의 역할이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김동호(2005: 57)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주장했으며, 최근에 발표한 『미션 임파서블(2009)』을 통해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독교의 입장에서 평가를 하면서 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동호, 2009: 36-48). 김동호의 경우 명시적으로 저축의 거시경제적 중요성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저축을 강조한 그의 저축관은 청빈론보다는 더 적절한 견해라고 판단된다.

3. 욕망에 대한 관점

마지막으로 재물관 논쟁에서 견해 차이가 큰 부분은 부자가 되려는 욕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김영봉(2003, 79-85)은 청부론자들이 부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서는 안 될 욕망임을 강조했다.

욕망에 대해 우리는 자주 그것을 '본성'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틀린 말이다. (중략) '본성(本性)'이라는 말은 한자 뜻 그대로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바탕'을 뜻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런 이기적 본성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는가? (중략) 성경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는 이기적 욕망이 없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른 피조물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기심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겨났다. (중략) 욕망은 인간성의 자연스러운 요소가 아니다. (중략) 욕망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본성이 아니라 치료해야 할 질병이다(김영봉, 2003: 79-80).

이와 같이 김영봉은 부자가 되려는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갈브레이스가 구분했던 '필요(needs)'와 '욕망(desires)'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

하나님과의 사귄이 깊어져 욕망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게 되면 비로소 눈이 열려 '필요'와 '욕망'을 구분할 수 있다. 욕망의 요

청을 절제하며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중략)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진정한 만족도 불가능하고 돈에 대해 자유로울 수도 없다(김영봉, 2003: 85).

여기서 욕망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성취 욕을 포함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을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욕망이 창조 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속성인가 아니면 타락으로 생겨난 죄악된 심성인가?

갈브레이스(J. K. Galbraith)는 마셜(Marshall)의 한계효용이론을 공격 하면서 한계효용체감의 효과는 '생리적 욕망'인 '필요(needs)'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심리적 욕망'인 '욕구(desires)'에는 한계효용이 체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배고픈 사람은 배가 부른 후에는 만족하지만, 옷은 한 벌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심리적 욕망(desires)은 현시적 소비나 전시효과를 부추기는 광고술에 의존하게 되는데 갈브레이스는 이를 의존효과(dependence effect)라고 불렀다. 그런데 기업은 새로운 욕망(desires)의 창출에만 주력해서 사회가 정작 필요로 하는 도로, 항만, 학교, 병원 등은 뒷전으로 밀려나므로 정부가 나서서 이를 해결해야 하며, 미국은 극도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병들고 있으며 이를 부추기는 것은 기업이라고 갈브레이스(Galbraith, 1976: 358)는 혹평했다.

그러나 갈브레이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하이에크(F. von Hayek)는 “의존효과의 불합리성(The Non Sequitur of the 'Dependence Effect')”에서 인간 내부에서 자연 발생하는 생리적 욕망 즉 필요(needs)만이 중요하다는 갈브레이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수면, 식사, 섹스와 같은 필요(needs)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모두 하찮거나 무의미한 욕망(desires)인가? 그리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욕망(needs)과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욕망(desires)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였다. 갈브레이스의 주장대로라면 문화란 무의미하지 않은가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 인간이 동

물과 구별되는 것은 기본적 필요 이외의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헨델은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서는 헨델이 작곡한 메시야가 울려 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베토벤이 태어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달빛이 아름다운 밤에 베토벤이 작곡한 월광곡이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월광곡을 듣고자하는 욕망(desires)은 자연발생적인 필요(needs)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베토벤이라는 천재 음악가가 우리 인류에게 심은 욕망(desires) 때문에 생긴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아름다운 음악을 단지 부자와 귀족들을 위한 지적 유희에 불과하다고 무시하지 않는 한 모든 욕망을 다 타락에서 유래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김동호(2005: 134, 136)는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이 되려면 욕심을 버리려 하지 말고 더 높은 가치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 복 가운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더 높은 가치에 대해 주리고 목말라하는 욕심을 말한다'고 주장했다. '밭에 감춘 보화'에 관한 비유도 “더 높은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낮은 가치에 속하는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신앙이란 높은 가치에 대한 욕심을 갖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했다.

구약의 의인들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다. 노아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고(창 7: 1), 아브람도 칭찬을 들었다(창세기 15: 6). 욥기(1: 8)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 앞에서 욥을 칭찬하셨다.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욕구를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고, 이러한 것이 성취욕의 근본 동기가 되어야 한다. 부자가 되려는 욕망을 부정하다가 모든 욕구를 부정하는 극단으로 나가는 것은 잘못이다. 욕구 중에는 '거룩한 욕구'도 있고, 바람직한 것을 추구하는 성취욕도 있다.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욕구'가 나쁜 것이다.

그러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바울이 디

모테전서(6: 9)에서 “부허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디모테전서 6: 9)”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부자가 되려는 욕구는 바람직하지 않은 욕구다. 그런 의미에서 청부론에서 주장하듯이 청부가 되려고 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청지기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을 일으키거나 상업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부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모두가 잘못된 욕구에 사로잡힌 자라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이다. 많은 기업가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기 보다는 기업을 일으키려고 전력을 다했는데, 어느 날 보니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진술은 많은 기업인들의 자서전에 등장한다. 기업가뿐만 아니라 정치가, 학자, 발명가, 운동선수 등 많은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부자가 되기도 하고, 유명인이 되기도 한다. 이들을 모두 부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또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성취욕을 가졌다는 이유로 비난할 수 없다고 본다.

타락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심어 놓은 거룩한 욕구가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방향으로 왜곡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문화 명령을 거두지 않았듯이 모든 인간에게 거룩한 욕구도 남겨 두셨다. 따라서 모든 욕구를 부정하는 청빈론은 지나치게 금욕주의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부가 되고자 하는 욕구도 성경적으로 볼 때 거룩한 욕구라고 보기 어렵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최선을 다한 결과 부자가 될 수 있고, 이것을 어느 정도 누리도 된다는 정도의 청부론이라면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IV. 결론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계에서 최근에 있었던 재물관 논쟁을 김동호(2001, 2005, 2009)와 김영봉(2003)의 견해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김동호의 견해를 중심으로 정부론의 핵심을 요약하고, 김영봉의 견해를 중심으로 청빈론의 주장을 정리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상원(2004)의 비판을 중심으로 각 재물관의 문제점을 검토했다. 이상원의 비판은 양비론으로 보이지만 사실 소비관이나 저축관 및 돈의 본질에 대한 견해는 김동호의 견해에 가깝다는 지적을 했다. 그리고 양비론적 비판의 결론은 재물관 논쟁이 있기 이전에 발표된 여러 논문에서 이미 대부분 제기된 견해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양비론적 비판은 재물관 논쟁의 핵심을 벗어난 것이다.

핵심적인 견해의 차이를 인정하고 적절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재물이나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에 대한 미시적인 측면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재물 또는 돈이 어떠한 중요성을 지니는가,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과 문화관의 관점에서 재물관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렇게 한국 기독교계의 재물관 논쟁은 문화관 및 세계관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하지 않았으며, 거시경제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문화명령을 고려할 때 문화활동과 경제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성취욕도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난 2세기 동안 인류가 이룩한 경제적 성취의 결과로 경제생활을 포함한 문화생활의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인정하고 기독교인도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 속에서 문화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기독교인은 자발적으로 다 나누어주고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청빈론은 적절한 절제를 넘어 금욕주의적인 견해라고 판단된다.

김동호(2001)가 주장하는 것 중에서 청부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능이나 재물 등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재물이 따라 올 수도 있는 것이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을 제외하고는 돈에 대한 관점, 소비와 저축에 대한 인식 등은 김영봉의 청빈론보다는 김동호의 청부론이 보다 성경적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현재 세계는 산업혁명이후의 놀라운 생산성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20퍼센트의 인구만이 경제적 성취의 열매를 향유하고 있다. 또한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구폭발이 선진지역에서 일어나서 인구폭발의 파괴력이 적었고 오히려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도 미쳤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이후의 인구폭발은 주로 후진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더욱 국가적 빈부격차를 벌어지게 하고 있다. 따라서 가난한 나라에 대한 관심이 크리스천의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는 단지 원조로만 빈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각국의 경제성장의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연구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선진국에서도 고령화 현상이라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에서 복지국가 이념이 후퇴하는 이유가 단지 신자유주의라는 사상 때문이 아니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각국의 복지비용이 치솟고 이를 세금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의학의 발전이 인류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지만 반면에 인구폭발이라는 재앙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원절약형 기술혁신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는 노동절약형 기술혁신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오히려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서 더욱 실업문제가 커지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미래 사회와 생산의 문제를 고려하여 저축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때 소득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단견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사치하고 낭비해도 좋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청부론에서는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서적은 거의 없다.

앞으로 이 연구를 더 발전시킨다면 소비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보다 깊이 있고 균형 잡힌 재물관 평가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경제학에서는 소비가 미덕이라고 하는데, 청교도들은 저축을 장려하였다. 어떠한 경우에 소비가 미덕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포함해야 보다 완성도가 높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이 연구에는 행복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경제체제 등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지 못했다. 이러한 것은 다음 연구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권명중 (2008), 『경제학, 성경에 길을 묻다』, 서울: 21세기 북스.
- 김동호 (2001), 『깨끗한 부자』, 서울: 규장.
- 김동호 (2002), 『깨끗한 크리스찬』, 서울: 규장.
- 김동호 (2005), 『행복한 부자를 위한 5가지 원칙』, 서울: 창림출판.
- 김동호 (2009), 『미션 임파서블』, 서울: 열매나눔재단.
- 김동호 (2003), 『깨끗한 고백』, 서울: 규장.
- 김병연·조성봉 (2008), 『크리스천 경제소프트』, 서울: 생명의 양식.
- 김성광 (2008), 『부자 자격증』, 서울: 강남.
- 김승욱 (1992), "A. Smith, K. Marx, 및 J. Calvin의 인간관 비교: 인간관, 모순의 원인 및 해결책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성』, 기독교학문연구소, 4(1).
- 김승욱·유혜신 (2003), "노동관의 제 유형과 성경적 노동관," 『신앙과 학문』, 7(1), 9-37.
- 김영봉 (2002), 『사립의 기도』, 서울: IVP.

- 김영봉 (2003), 『비늘귀를 통과한 부자: 그리스도인 부자로 살아도 되는가?』, 서울: IVP.
- 김영봉 (2008), 『숨어계신 하나님』, 서울: IVP.
- 김진홍 (2001), 『성경의 경제와 경영』, 서울: 두레시대.
- 김홍섭 (1996), “기독교 경제의 주요 테마에 대한 사적 회고와 새로운 모색” 『통합연구』, 9(1-2), 7-36.
- 박득훈 (2004), “대안경제체제를 향하여,” 『경제문제와 기독교 윤리』, 서울: 예영.
- 박성수·김성주·김동호·하용조·홍정길 (2004),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서울: 규장.
- 박철수 (1989), 『돈과 신앙』, 서울: 예찬사.
- 손경구 (2002), 『돈과 영적 성숙』, 서울: 두란노.
- 양창삼 (2007), 『하나님의 부자 경제학』, 서울: 브니엘.
- 유성은 (2008), 『행복한 부자』, 서울: 평단.
- 이건창 (1991), “가난과 그리스도인의 경제 원리에 관한 소고” 『통합연구』, 11, 85-105.
- 이상규 (1991), “성경에 나타난 부요의 양면성,” 『통합연구』, 11, 107-35.
- 이상원 (2004), “청부론과 청빈론을 넘어서,” 『경제문제와 기독교 윤리』, 한국기독교윤리학 논총 제6집, 56-99.
- 이운재 (2004), 『성경속의 경제학』, 서울: 송실대 출판부.
- 이재율 (2009), 『그리스도인을 위한 경제학』, 대구: 계명대 출판부.
- 전강수·한동근 (1999), 『토지를 중심으로 본 성경적 경제학』, 서울: CUP.
- 전광식 (1991), “가난과 부요의 지면 - 아굴의 기도와 성경적 소유원리,” 『통합연구』, 11, 181-215.
- 조성표 (2008), 『알수록 행복해지는 돈의 비밀』, 서울: CUP.
- 홍순원 (2004), “기업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이해 및 청부론과 청빈론을 넘어서에 대한 논찬,” 『경제문제와 기독교 윤리』, 한국기독교윤리학 논총 제6집, 100-105.
- 황의서 (2003), 『경제와 신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황인태 (1996), 『주인 없는 돈』, 서울: 창년사.

- 황호찬 (1996), 『돈, 그 끝없는 유혹』, 서울: IVP.
- 황호찬 (2001), 『돈, 그 유혹으로부터의 자유』, 서울: 태학사.
- Alcoan, Randy (2003), *Money Possessions and Eternity*, 김신호 역 (2006), 『돈, 소유 그리고 영원』, 서울: 예영.
- Beals, Art (1978), *Beyond Hunger: A Biblical Mandate for Social Responsibility*, Doubleday Religious Publication Company.
- Beinhocker, Eric (2006), *The Origin of Wealth*, 안현실·정성철 공역 (2007), 『부의 기원』,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 Biéler, André (1985),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홍치모(역), 『칼뱅의 경제윤리』, 서울: 성광문화사.
- Burkett, Larry (1975), *Your Finance in Changing Times*, 박정윤·조성표 공역 (1993), 『하나님, 돈을 어떻게 쓸까요?』, 서울: CUP.
- Burkett, Larry (1989), *The Complete Financial Guide for Young Couples*, 조성표 역 (1992), 『돈 걱정 없는 가정』, 서울: CUP.
- Burkett, Larry and Rick Osborne (1991), *Financial Parenting*, 손상희·김경자 공역 (2001) 『부유한 자녀로 양육하라』, 서울: CUP.
- Chewning, Richard C. (ed.) (1990), *Christians in the Marketplace Series Biblical Principles and Business: The Practice*, 기독교경영연구회 역 (1993), 『기업경영과 성경적 원리』, 서울: IVP.
- Chewning, Richard C. John W. Eby and Shirley J. Roels (1990), *Business Through the Eyes of Faith*, 안동규·한정화 역(1995), 『신앙의 눈으로 본 경영』, 서울: IVP.
- Clark, Rebecca (1991), *Breakthrough*, 전민식 역 (1991), 『크리스천도 잘 살아야 한다』, 서울: 지문사.
- Conwell, Russell H. (2000), *Arcs of Diamonds*, 강주현 역 (2000), 『부자가 되는 것은 인간의 의무다』, 서울: 모색.
- Easterlin, R. A. (1995), "Will Raising the Incomes of All Increase the Happiness of Al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27,

35-48.

- Ehrlich, Paul R. (1968), *Population Bomb*, Ballantine Books.
- Ellul, Jacques (1950), *L'homme et l'argent*, 양명수 역 (1991), 『하나님이나 돈이냐』, 서울: 대장간.
- Foster, Richard J. (1989), *Money, Sex and Power*, 권명달 역 (1992), 『크리스천과 돈, 섹스, 권력』, 서울: 보이스사.
- Fromm, Erich (1976), *To Have or to Be*, 정성환 역 (1988), 『소유냐 삶이냐』, 서울: 홍신문화사.
- Galbraith, John Kenneth (1976), *The Age of Uncertainty*, 김영선 역 (1978) 『불확실성의 시대』, 서울: 창조사.
- Goudzwaard, Bob (1978), *Capitalism and Progress*, 김병연·정세열 공역 (1989), 『자본주의와 진보사상』, 서울: IVP.
- Griffiths, Brian (1984), *The Creation of Wealth: A Christian's Case for Capitalism* II: IVP.
- Hayek, Friedrich A. (1961) "The Non Sequitur of the 'Dependence Effect'," *Southern Economic Journal*, 27, 346-348.
- Hinn, Benny (2000), *Biblical Road to Blessing*, 최규선 역(2000),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울: 크레도.
- Jandl, Al and Van Crouch (2004), *The Storehouse Principle*, 김성겸 역 (2007), 『곳간 원리: 크리스천의 부자원리』, 서울: 홍성사.
- Kraybill, Donald B.(1991), *Upside-down Kingdom*, 정양만 역(1999), 『돈 교회 권력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서울: 요단출판사.
- Kuyper, Abraham (1980), *Christianity as a Life-system: The Witness of a World-view*, (Memphis, TN: Christian Studies Center), 서문강 역 (1987),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 기독교의 세계관과 인간이해』, 서울: 새순출판사.
- Layard, Richard Grenville (2005), *Happiness: Lessons from a New Science*, Penguin.
- Mandeville (1795), *Bernard Fable of the Bees: Private Vices, Public*

Benefits, Kessinger Publishing.

NEF (2009), *The Happy Planet Index 2.0*, London: New Economics Foundation.

Niebuher, Richard H. (1951), *Christ and Culture*, 홍병룡 역 (2007), 『그리스도와 문화』, 서울: IVP.

Osteen, Joel (2004), *Your Best Life Now*, 정성목 역 (2005), 『긍정의 힘: 믿는 대로 된다』, 서울: 두란노.

Sider, Ronald J. (1990), *Rich Christians in an Age of Hunger*, 3rd edition.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서울: IVP.

Soto, Hernando de (2000), *The Mystery of Capital: Why Capitalism Triumphs in the West and Fails Everywhere Else*, 윤영호 역(2003), 『자본의 미스터리: 왜 자본주의는 서구에서만 성공했는가』, 서울: 세종서적.

Stapleford, John E. (2002), *Bulls, Bears, and Golden Calves*, 이우성 역(2007), 『그리스도인의 경제학 산책』, 서울: ISLE.

Stevenson, Betsey and Justin Wolfers (2008) "Economic Growth and Subjective Well-Being: Reassessing the Easterlin Paradox."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 1-7.

Weber, Max (1920),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박성주 역 (1988),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서울: 문예출판사.

Wilkinson, Bruce (2000), *Prayer of Jabez*, 마영래 역(2001), 『아베스의 기도』, 서울: 디모데.

Wilmer, Wesley and Martin Smith (2002), *God and Your Stuff: The Vital Link Between Your Possessions and Your Soul*, 정성목 역 (2003). 『하나님과 재물』, 서울: SFC.

Wolters, Albert M. (1985),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양성만 역 (1992), 『창조, 타락, 구속』, 서울: IVP.

Wolterstorff, Nicholas (1983),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홍병룡 역 (2007),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출 때까지』, 서울: IVP.

ABSTRACT

Critics about the Debate on the Christian
Perspectives of Wealth

Seung Wook Kim(Chung 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debate on the Christian perspectives of wealth and to stress of the importance of capital and production. For this purpose, the perspectives of Dongho Kim(2001, 2005, 2009) and of Youngbong Kim(2003) are explained. In this paper, it is stressed that the debate in Korea on this issue did not stem from the Christian world-view and lacked the macroeconomic perspective of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If the cultural mandate is considered, desire for accomplishment, the cultural activity and economic development can be evaluated positively. And in this paper, the effects of accumulation of capital through savings are stressed, which is ignored in Korean Christian academic society. If we consider the economic achievement last 2 centuries, we can conclude that it is too ascetic to argue that all Christians should be poor through sharing all his belongings. Exception of the extreme argument that Christians also try to pursue to be rich, most of the argument of Dongho Kim's argument that Christian could be wealth, is more acceptable.

Key Words: Christian Perspective on Wealth, Honest Wealth Theory, Honest Poverty Theory, Christian Perspective on Savings, Christian Perspective on Culture.